

## 네부타의 집 와·랏세

와·랏세는 2011년 1월에 문을 연 네부타 마쓰리의 역사와 예술 전시 뮤지엄입니다. 뮤지엄의 이름 '와·랏세'는 '와라이('웃음'이라는 의미의 일본어)'의 머리글자와 네부타 마쓰리의 구호 '랏세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와·랏세에서는 네부타 마쓰리의 매력을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의 커다란 건물은 아오모리항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뮤지엄에 들어서면 북과 피리, 심벌즈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하야시(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가 흘러 네부타 마쓰리 날 밤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조명으로 밝혀져 있는 2층 '네부타 타임 터널' 안에서는 네부타의 역사와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는 수상을 한 4대가 네부타 홀에 전시되며, 각 네부타의 구조와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나무와 철사로만 되어 있는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제작공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부타사(네부타 장인)가 그린 밑그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밑그림은 상세한 설계도라기 보다는 그림에 가까운데,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만들 때의 지침이자 예술적인 디자인의 열쇠가 되는 것으로 뛰어난 장인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차원적인 밑그림을 보면 조립되기 전이라도 표정이 풍부한 네부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뮤지엄에서는 네부타를 만져 보거나 네부타 마쓰리 무대 뒤를 알 수 있는 강좌 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북과 시노부예(대나무 피리), 데부리가네(손바닥 크기의 심벌즈)로 축제의 흥을 돋우는 하야시 연주법을 배울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미니 금붕어 네부타나 네부타 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